

제52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작품(3)

*작품제목	외할머니와 할미꽃	*이름	OOO
*작품소개	주제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전망대로의 여행에서 외할머니의 상상하면서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사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떠나는 강원도 여행은 매우 즐거웠었다. 나는 8살 즈음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에 마냥 출랑대며 앞장을 섰다. 여행지는 강원도 최북방의 고성 통일전망대였다. 이 여행은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이뤄졌다. 계절은 가을, 우리나라 산천은 이쯤에 어디나 단풍으로 물들어 화려하다 못해 눈부셨다.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산 준령들은 수채화 물감을 원색으로 풀어 놓은 듯하여, 먼 여행을 해보지 못했던 어린 나로서는 매우 들뜨는 기분이었고 가슴 설렘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풍경은 그림책에서 본 것보다 더욱 호화찬란했다. 움직이는 그림 영상, 곱게 흐르는 산야, 곱다랗게 비단폭을 펼치는 강줄기는 어린 내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아마 천국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들뜨며 손뼉치고 요란할 때 어른들은 마냥 침울한 표정이었다. 수심이랄까 아니면 가만히 우수에 젖는 표정이랄까 아무튼 그런 모습이였다. 특히 할머니는 간간히 드리는 간식도 거절하는 상태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 된 마당에 생각해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할머니의 한 평생 수난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처럼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길을 따라 남녘으로 피난길에 올라서 남쪽 여러 곳을 방랑하다가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의식되던 순천 땅에 머물렀단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당시 더 어린 동생들과 후일에 내려와 만나자는 약조와 더불어 함경도 땅에 그대로 머물러 결과적으로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단다. 그후로 할머니에게는 순천이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함경도가 고향이라는 할머니의 어릴 때 머릿속에는 어떤 고향 정경이 그려지고 있을까? 아마도 강원도 산천에 오버랩 되었으리라 싶었다.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북한 풍경과 유사한 곳을 찾다 보니 자연 강원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여행길이 가장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여겨졌다.

증조부께서 사실 만큼 시시고 당신의 임종 마당에 할머니 내외를 불러 앉히시고 유언하시기를 “절대로 북쪽 가족을 잊지 말라. 북한 고향도 잊지 말라” 하셨단다. 그런 연유로 할머니는 고향 정경이 설핏 스치는 강원도 북단을 찾게 된 것이라 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인간답게 살며 자유를 한껏 누리고 사는 모습을 북한 가족에게 보이고 싶은 근원적 조바심도 작용했으리라 싶었다.

고성의 언덕에 올라 망원경으로 보는 고향 산천은 얼마나 다정한 느낌이었을까? 어른거리며 겨우 윤곽이 잡히는 금강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경으로 보였을까? 멀리 동해 바다에 밀리는 하얀 파도는 무한한 할머니의 한을 달래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터이다. 그리고 짙은 향수를 달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코앞에는 무시무시한 철조망이 38선을 굶고 있는 것이다. 잔인무도했던 6.25전쟁의 참화가 불보듯 환히 상기도 되었을 것이다. 가슴 서늘한 회한이 겹겹한 철조망만큼이나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것이다. 철없이 고운 풍경으로만 즐거워했던 나는 이제야 죄스러움으로 가슴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철조망은 조국과 우리 민족의 분단을 상징한다. 적대감으로 맞겨루는 의미로 전선 155마일을 가로지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우리의 운명은 남아 있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그리고 유구한 역사로 함께 누리는 공통 문화는 이렇게 냉혹한 물리적 분단으로 파탄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새들은 남북을 자유로이 넘나드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인 우리만 이런 억울한 통제로 막혔단 말인가? 뻗속까지 아리고 가슴 아픈 한반도의 허리 잘림은 한 세기를 넘으려 한다.

그 허리 잘린 통증을 한 생애 동안 감내해야 했던 할머니도 한반도 허리 잘린 분단의 아픔을 상징이라도 하듯 허리 구부러져 땅 위 당신 그림자에 수평으로 거닐었던 것이다.

허리 아픔의 무게를 유독 할머니에게 운명 지운 듯 하여 그 운명이 야속하기도 했다. 할머니 말년에는 허리 구부러진 상태로 사시다 영면에 드셨고, 할머니 유해는 순천의 북쪽 산에 모셨다.

할머니 돌아가신 철은 늦은 봄이었다. 그 후로 가족들은 통일 전망대 대신 할머니 묘소를 봄마다 찾았다. 몇 년 째 되던 봄, 묘소 둘레는 일부러 심은 듯 할미꽃 몇 포기가 자생하고 있었다. 마치 허리 통증으로 민족의 한을 여미며 사시던 할머니가 환생한 듯도 보였다. 후일 후손들도 잘 보란 듯이, 민족의 아픔을

상기시킨 듯도 보였다.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였을까? 함경도에 남아 있을 가족들은 얼마나 독재와 굶주림에 고통 받을까 하고 밤낮 없이 근심했을 것이다. 통일전망대에서 보이던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과는 너무 대조적인 북한 주민들 고통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을 것이다.

그런 표정으로 안으로 심장만은 붉어도 겉으로 가시 모습의 형용으로 피어나는 할미꽃에게서 우리는 민족의 설움을 읽는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남북통일이 되어 세계에서 으뜸가는 행복한 나라, 자유가 구름처럼 흐르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환상 아닌 소망을 간절히 가슴에 품는다.

할미꽃이 정작으로 꽃으로 보이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